

실뱀장어 줄어 양만업 폐업 속출

가격도 3배 올라... 인공부화 등 연구방안 시급

뱀장어 치어(稚魚) 자원이 해마다 줄면서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양만업계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인공부화 등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일선 양만업계와 양만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해양 변화로 실뱀장어 자원 채포(採捕)가 줄어들면서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뛰어 입식을 못한 양만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뱀장어 마리당 가격은 5년 전 2000~3000원에서 올해는 3배 가

운 7000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치어 거래시 종묘판매 수집상들이 1kg당 6000~7000마리 기준을 5000마리로 속여 파는 농간을 벌여 양만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만업자들은 그동안 양만양식 여건에 좋고 맛이 뛰어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대만 연안에서 채포되는 극동산 실뱀장어(학명 엔길라 자포니카)를 입식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는 북미산과 동남아산 종묘를 수입해 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돈을 주고도 종묘를 구입하지 못해 입식을 포기하는 양만업자가 늘고 있다.

양만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 40여 개 양만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입식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어 생산량은 지난 2009년 2만 t 정도였으나 2010년과 지난해 1만 t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장어(성어) 파동까지 이어져 또한 지난해까지 kg당 2만5000원에서 4만원대로 경중 뛰어 소비

자들이 장어 전문식당을 위면하고 있다.

이중명 전남 양만조합 사업과장은 “날로 고갈돼가는 자연산 실뱀장어에 의한 일시적인 양만업이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가 나서 인공부화 연구개발을 통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양만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뱀장어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며 서식하다 심해 깊은 바다에서 산란, 하천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산불진화 모의훈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박갑동)와 정성군청, 정성 119안전센터는 최근 정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사 주치장에서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제공)

강진 송학마을 수령 700년 향나무 아시나요

700년된 향나무가 푸르름을 뽐내고 있어 화제다.

강진군 성전면 송학마을에 자리한 700년생 향나무의 당당한 자태가 식목의 계절에 한층 돋보이고 있다.

향나무는 높이 5.5m·지름 1.5m 크기로, 수령은 700여년생으로 추정된다.

향나무는 한때 제사향불을 피우기 위해 몸통이 난도질당하는 등 수차례 고사 직전까지 갔으나, 나무 주인인 김홍순씨의 정성으로 다시 피 살아나고 했다.

사진속 향나무 하얀 부분은 이 미 고사된 부분이고, 오른쪽 황도색으로 짙게 올라간 부분은 이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선이다. 나무 전문가들은 이 향나무가 나이와 수령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2개부문 공모사업 선정 1억 900만원 예산 받아

담양교육지원청

담양 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권)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2012년도 공모사업에서 2개 부문이 선정돼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등 2개 부문이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모사업은 ‘최우수’등급에 선정돼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공모사업은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좋은 점수를 받아 4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쾌척

화순 도곡 농공단지협

화순군 도곡 농공단지협의회(회장 노시혁)는 최근 도곡면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도곡면 자율방범대는 대원 30명을 5개 조로 나눠 취약시간대에 도곡면 관내마을을 매일 순찰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나, 운영 차량이 노후화 순찰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사정을 접한 이봉훈 도곡면장을 비롯한 도곡면 사회단체장협의회 회원들이 나서면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박용민 자율방범대장은 “앞으로도 지역 치안유지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곡면 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훈)는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마련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 모금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장성, 농업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금지

장성군은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과 농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림사업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장성군은 농업보조금 지원의 중복·편중 방지 방안을 마련, 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농림사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보조금 효율집행 추진 계획’을 확정해 읍·면에 시달했다.

이는 농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한 또는

생산지 단체에 중복 또는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 형평성과 적격 대상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사업은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농림수산분야 보조사업 전체이다. 4월 1일 이후 확정 시달된 사업부터 개별사업 시행 완료 후 10년간 지원 금지처분을 받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yongho@

전 북

“보리문화 모든 것 체험을”

김제 남포리 일원서 내달 4~5일 축제

‘제37회 남포들녘 보리 문화 축제’가 오는 5월 4~5일 이틀간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일원 220여ha의 광활한 보리밭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에는 김제시의 모든 경관축제를 5월 첫 주에 개최하기로 협의, 관광객들이 김제를 방문해 여러 축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들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보리문화에 대한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덕면 남포리 주민들은 지난 2월초 행사를 주관할 10여명의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1~2차례 만나 축제 전반에 대해 논의해 왔다.

보리축제 관계자는 “올해는 ‘하늘선’이라는 특산물 브랜드도 생겨난 만큼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김제 쌀, 찰쌀보리, 지렁이 누룽지, 시래기 등에 대한 홍보와 관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노오란 산수유 꽃 활짝

남원시 주천면 용공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산수유꽃을 보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지리산둘레권역 용공 산수유꽃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권희정)는 지난 7~8일 ‘제3회 지리산둘레권역 용공 산수유 꽃 축제’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도 농기원, 원주리 신제품 개발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꽃수가 많고 향기가 있는 원주리 신제품을 개발, 품종등록을 마쳤다. 이번 개발된 신제품은 화단·분화용 원주리인 오렌지썸머, 예로우썸머, 스칼렛썸머 등 3종이다. 신제품은 크기가 30~50cm 정도의 분화용으로 이용가치가 크며 화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꽃수가 한주에 20~30개로 자생원주리의 5-10개보다 훨씬 많고 향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재배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시,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

남원시의 숙원사업인 향교동 공동묘지가 이전되고 이곳에 시민체육공원이 조성된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34억4500만원을 들여 2만5,700㎡의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시민 건강증진과 관광객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향교동 공동묘지는 시가지 관문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에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동묘지가 이전되고 체육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군산에 해상풍력단지 유치하자”

민간추진위 출범

정부의 서남해 2.5GW 해상풍력물류단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군산시민간담회 활동이 본격화했다.

해상풍력 배후물류단지 민간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우)가 지난 6일 군산 리즈프라자호텔에서 정현을 전북도부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채정용 군산대총장, 김용화 전북도의회의장, 고석강 군산시의회의장, 심성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의 해상풍력 육성을 계획하고 부안 위도와 영광 사이 해상에 2.5GW의 대단위 풍력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성공적인 해상풍력단지 유치를 위한 배후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 공모절차를 진행해 6월 중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학계·경제계·사회단체

등의 사회 지도층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 중심으로 군산항 7부두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물류단지로 유치, 녹색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선진항만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승우 민간추진위원장(군정대 총장)은 “군산항은 풍력 배후단지로서 최적의 장점과 무한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항”이라며 “군산시민의 의지와 지지를 결집하여 기필코 배후물류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3월 국내최대규모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시스템사 3개 기업, 국내유일의 블레이드를 생산하고 있는 KM, 데크항공, 풍력발전기 타워를 생산하는 대립C&S 등 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자연휴양림, 복합 휴양공간 탈바꿈

8곳 이용객 3년만에 82% 증가 사업비 67억 들여 웰빙공간 조성

현재 도내에는 ▲완주 고산면 오산리 ‘고산’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와룡’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 ‘세심’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무주’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성수산’ ▲남원시 갈치동 ‘남원’ 등 8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진안 운장산·순창 화문산·무주 덕유산 등 3개소가 있다.

이 밖에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운영하는 선각산 자연휴양림이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다.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매월 1일 인터넷을 통해 순차적 예약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67억5000만원의 예산을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등 6개 사업에 투입, 자연휴양림을 웰빙 복합 휴양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무궁

김제시, 벚꽃축제 활성화 간담회

김제시 보건위생은 지난 5일 금산면 청소년 문화의집 2층 회의실에서 금산사 상가주변과 청도리 음식점 등 50개소 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벚꽃축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모악산 벚꽃축제 준비사항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제공 ▲가격 10%인하 추진 ▲위생복(위생모)착용 ▲상가입구 청사초목 제거 ▲여행사주변정리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창군 ‘녹색 쌈지공원’ 조성

고창군은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고창을 시가지내국·공유지 4개소에 1만100㎡ 규모의 ‘녹색 쌈지공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에 3억원

을 들여 현지 확인과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5월까지 교목·관목·초화류를 적절히 식재해 도심 주변 환경을 어울리는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